

그날의 맹세와 더불어 길이 빛나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을 더듬으며

세기와 세기를 이어 빛나는 성스러운 길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0대의 어버신 나라이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

일제침략자들에 걸친한 조국땅에 해방의 새봄을 암아오늘 험한 끝을 줍으시고 눈보라 사나운 거울에 만경대로 부터 팔도구까지 미나번 천리길을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자족은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9·3들이 되는 끝을 날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불멸의 자족을 역사에 아로마기신 절제위인의 국적의 도정을 마음속으로 삼아 더듬어 보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대양이시다.』

광복의 천리길은 민족수난의 그 세월 우리 수령님께서만 걸으실수 있었던 위대한 국의 길이였다.

창학교출업을 몇몇 일문 주제 1~4(1925~6년) 1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제강점에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

강도 일제에게 빼았던 나라를 찾자면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높은 뜻을 말드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배우에게 천리길을 걸어 조국에 나오시여 칠물의 창학교에서 공부하던 기간은 무해박에 끝이 않았다.

그 나날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가혹한 학살과 폭동, 중세기적인 폭압 속에서 신을 하는 인민들의 원성이 하늘에 떠는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체험하시면서 그 무엇으로써도 끌어올 수 없

는 조선민족의 독립의지를 절감하시었으며 인민대중을 잘 조직동원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인민자제의 힘으로 나라를 찾을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시였다.

그때를 잊지 못해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어떤 힘으로 죄도 죄송지 않은 민족의 존엄과 강철같은 독립의지를 감수하였다

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인민을 세상에 세게 일 좋은 인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런 인민을 잘 조직동원한다면

얼마든지 나라를 찾을수 있으리라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님이신 우리 나라 백인족해방운동의 타락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끝을 들어나 떠나는 두동생에 그려보며 조선이 득 달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단연코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 혁명의 천리길!

그 길은 일제식민지 통치의 걸은 구름이 위태로운 조국 강상에 민족재생의 사광을 펴 쳐 주고 민족대종의 자주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의 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복의 천리길에 이어 항일의 혁신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격灭하심으로써 마침내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사랑하는 고향, 사랑하는 고향에 가는 조국땅을 두고 떠나는 비통한 마음이 크실수록 우리 수령님의 가슴속에서는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기어이 조국을 헤방하길 막아야 했으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가부리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속에서 불리워오는 노래를 조용히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들어보시며 최고령도자『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였다.

『나는 설설과 비분을 얹고 조국산천을 떠번이고 돌아보았다.

조선아, 조선아, 나는 나를 떠난다. 너를 떠나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뿐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너는다. 압록강만 건너면 남의 나라 땅이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간을 내 너를 잊을수나. 조선아, 나를 기다려다오.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다시 『압록강의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온 날은 과연 언제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10년 생각을 하니 어쁜 마음에도 비감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선이 득 달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단연코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 혁명의 천리길!

그 길은 일제식민지 통치의 걸은 구름이 위태로운 조국 강상에 민족재생의 사광을 펴 쳐 주고 민족대종의 자주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의 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복의 천리길에 이어 항일의 혁신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격灭하심으로써 마침내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사랑하는 고향, 사랑하는 고향에 가는 조국땅을 두고 떠나는 비통한 마음이 크실수록 우리 수령님의 가슴속에서는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기어이 조국을 헤방하길 막아야 했으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가부리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속에서 불리워오는 노래를 조용히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들어보시며 최고령도자『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였다.

『나는 설설과 비분을 얹고 조국산천을 떠번이고 돌아보았다.

조선아, 나는 나를 떠난다. 너를 떠나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뿐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너는다. 압록강만 건너면 남의 나라 땅이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간을 내 너를 잊을수나. 조선아, 나를 기다려다오.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다시 『압록강의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온 날은 과연 언제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10년 생각을 하니 어쁜 마음에도 비감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선이 득 달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단연코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 혁명의 천리길!

그 길은 일제식민지 통치의 걸은 구름이 위태로운 조국 강상에 민족재생의 사광을 펴 쳐 주고 민족대종의 자주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의 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복의 천리길에 이어 항일의 혁신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격灭하심으로써 마침내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사랑하는 고향, 사랑하는 고향에 가는 조국땅을 두고 떠나는 비통한 마음이 크실수록 우리 수령님의 가슴속에서는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기어이 조국을 헤방하길 막아야 했으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가부리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속에서 불리워오는 노래를 조용히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들어보시며 최고령도자『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였다.

『나는 설설과 비분을 얹고 조국산천을 떠번이고 돌아보았다.

조선아, 나는 나를 떠난다. 너를 떠나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뿐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너는다. 압록강만 건너면 남의 나라 땅이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간을 내 너를 잊을수나. 조선아, 나를 기다려다오.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다시 『압록강의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온 날은 과연 언제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10년 생각을 하니 어쁜 마음에도 비감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선이 득 달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단연코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 혁명의 천리길!

그 길은 일제식민지 통치의 걸은 구름이 위태로운 조국 강상에 민족재생의 사광을 펴 쳐 주고 민족대종의 자주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의 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복의 천리길에 이어 항일의 혁신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격灭하심으로써 마침내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사랑하는 고향, 사랑하는 고향에 가는 조국땅을 두고 떠나는 비통한 마음이 크실수록 우리 수령님의 가슴속에서는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기어이 조국을 헤방하길 막아야 했으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가부리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속에서 불리워오는 노래를 조용히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들어보시며 최고령도자『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였다.

『나는 설설과 비분을 얹고 조국산천을 떠번이고 돌아보았다.

조선아, 나는 나를 떠난다. 너를 떠나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뿐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너는다. 압록강만 건너면 남의 나라 땅이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간을 내 너를 잊을수나. 조선아, 나를 기다려다오.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다시 『압록강의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온 날은 과연 언제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10년 생각을 하니 어쁜 마음에도 비감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선이 득 달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단연코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 혁명의 천리길!

그 길은 일제식민지 통치의 걸은 구름이 위태로운 조국 강상에 민족재생의 사광을 펴 쳐 주고 민족대종의 자주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의 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복의 천리길에 이어 항일의 혁신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격灭하심으로써 마침내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사랑하는 고향, 사랑하는 고향에 가는 조국땅을 두고 떠나는 비통한 마음이 크실수록 우리 수령님의 가슴속에서는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기어이 조국을 헤방하길 막아야 했으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가부리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속에서 불리워오는 노래를 조용히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들어보시며 최고령도자『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였다.

『나는 설설과 비분을 얹고 조국산천을 떠번이고 돌아보았다.

조선아, 나는 나를 떠난다. 너를 떠나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뿐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너는다. 압록강만 건너면 남의 나라 땅이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간을 내 너를 잊을수나. 조선아, 나를 기다려다오.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다시 『압록강의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온 날은 과연 언제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10년 생각을 하니 어쁜 마음에도 비감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선이 득 달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단연코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 혁명의 천리길!

그 길은 일제식민지 통치의 걸은 구름이 위태로운 조국 강상에 민족재생의 사광을 펴 쳐 주고 민족대종의 자주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의 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복의 천리길에 이어 항일의 혁신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격灭하심으로써 마침내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사랑하는 고향, 사랑하는 고향에 가는 조국땅을 두고 떠나는 비통한 마음이 크실수록 우리 수령님의 가슴속에서는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기어이 조국을 헤방하길 막아야 했으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가부리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속에서 불리워오는 노래를 조용히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들어보시며 최고령도자『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였다.

『나는 설설과 비분을 얹고 조국산천을 떠번이고 돌아보았다.

조선아, 나는 나를 떠난다. 너를 떠나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뿐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너는다. 압록강만 건너면 남의 나라 땅이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간을 내 너를 잊을수나. 조선아, 나를 기다려다오.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다시 『압록강의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온 날은 과연 언제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10년 생각을 하니 어쁜 마음에도 비감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선이 득 달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단연코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 혁명의 천리길!

그 길은 일제식민지 통치의 걸은 구름이 위태로운 조국 강상에 민족재생의 사광을 펴 쳐 주고 민족대종의 자주위업, 주체혁명위업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의 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복의 천리길에 이어 항일의 혁신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격灭하심으로써 마침내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사랑하는 고향, 사랑하는 고향에 가는 조국땅을 두고 떠나는 비통한 마음이 크실수록 우리 수령님의 가슴속에서는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기어이 조국을 헤방하길 막아야 했으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가부리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속에서 불리워오는 노래를 조용히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들어보시며 최고령도자『세기와 더불어』에 이렇게 쓰시였다.

『나는 설설과 비분을 얹고 조국산천을 떠번이고 돌아보았다.

조선아, 나는 나를 떠난다. 너를 떠나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뿐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너는다. 압록

그 무엇으로 써도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지금 미국과 그 후종세력들은 사상 최악의 계제봉쇄와 통속에서도 소급도 혼들 립없이 막승의 위력을 펼치며 침략에 전진하는 주제조선의 불굴의 기상앞에 기침초를 허여 어행바를 물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 하신 소식이 온 행성을 진감하고 있다.

국가과학원을 찾으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전시관을 들이보시면서 우리과 학자들의 두뇌에서 나오는 창조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곳은 자력자강의 보물고,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 향합니다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이 모친 시련과 난관을 파악하고 출승구하고 있으며 우리과 학자들의 전략적지위가 비상히 광활할 수 있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과학기술에 나래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의 운명을 걸고 과학기술전선에 선서하는 우리과 학자들에게 비상히 광활한 세계에 선제주권의 승리적전선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결심하는 사회주의의 광복은 세계 선제주권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고 달보이는 지식경제 광국이다.

우리가 강대해지고 잘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적대세력들의 악무도한 계제와 광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의 광복을 향해 노력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끌어들여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의 위력을 최대로 높이는데 모든 기적과 승리의 중요한 비결이 있다. 국방력강화의 근본열쇠도 첨단과학기술에 있고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강국건설에서의 눈부신 성과도 과학기술에 원천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경쟁이 온 사회에 차지되자 하여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될 때 죄악의 조건에서도 쇠상의 성과를 이득할 수 있다.

지난해 국방과학부문을 비롯하여 우리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고 최후승리를 앞당겨 오려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과학기술중시는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심, 강국님원을 담아온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면에서 세계를 앞서나가는 천하제일 광국으로 빛내고자 세상에서 가장 광복한 우리 인민에게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려는 조선로동당의 드림 것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 사회발전의 핵심으로 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위력을 떠나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선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결심하는 사회주의의 광복은 세계 선제주권의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고 달보이는 지식경제 광국이다.

우리가 강대해지고 잘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적대세력들의 악무도한 계제와 광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의 광복을 향해 노력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끌어들여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의 위력을 최대로 높이는데 모든 기적과 승리의 중요한 비결이 있다. 국방력강화의 근본열쇠도 첨단과학기술에 있고 경제강국건설과 문명강국건설에서의 눈부신 성과도 과학기술에 원천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경쟁이 온 사회에 차지되자 하여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될 때 죄악의 조건에서도 쇠상의 성과를 이득할 수 있다.

지난해 국방과학부문을 비롯하여 우리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고 최후승리를 앞당겨 오려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 과학국에 대한 제제와 봉쇄의 그물을 걸어온 미국과 그 후종세력들은 우리가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은 역사상 있어 본적 없는 가장 아蛮적인 광란이 있다.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이 미증유의 광란도 한 반공화국 국제체제에 크게 악은 한 나라의 경제를 열면도 멀지 않게 봄파서길 수 있는 살인적인 것이라고 평한 것은 우연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우리 조국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주체의 힘 강,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르고 사회주의의 광복건설에서 대탈출이며 현대적인 산파들이 이룩되었다. 이것은 과학수단을 충돌동으로 하여 이만적인 계제봉쇄동에 미쳐날뛰는 한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혁신학자들을 대체적으로 주동화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조선평방발부기를 전제없이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전에는 카나다에 주동세력을 불러들여 그 무슨 외교당국자들의 리는 것을 끌어놓고 우리 과학국에 대한 「해상차단」에 대비해서 거두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어떤 계제봉쇄와 군사적봉쇄공간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판을 위해 헌신분우하는 과학원과 학자들이 있는 한 적들의 계제소동은 그 어떤 맥도 출도를 막을 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과 결심을 높이 밟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 흥얼거리며 나선 우리과 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우리식의 대출역발동기를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하였다. 주체적인 계제봉쇄동에 미쳐날뛰는 한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혁신학자들을 대체적으로 주동화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조선평방발부기를 전제없이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전에는 카나다에 주동세력을 불러들여 그 무슨 외교당국자들의 리는 것을 끌어놓고 우리 과학국에 대한 「해상차단」에 대비해서 거두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어떤 계제봉쇄와 군사적봉쇄공간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판을 위해 헌신분우하는 과학원과 학자들이 있는 한 적들의 계제소동은 그 어떤 맥도 출도를 막을 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과 결심을 높이 밟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 흥얼거리며 나선 우리과 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우리식의 대출역발동기를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하였다. 주체적인 계제봉쇄동에 미쳐날뛰는 한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혁신학자들을 대체적으로 주동화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조선평방발부기를 전제없이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전에는 카나다에 주동세력을 불러들여 그 무슨 외교당국자들의 리는 것을 끌어놓고 우리 과학국에 대한 「해상차단」에 대비해서 거두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어떤 계제봉쇄와 군사적봉쇄공간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판을 위해 헌신분우하는 과학원과 학자들이 있는 한 적들의 계제소동은 그 어떤 맥도 출도를 막을 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과 결심을 높이 밟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 흥얼거리며 나선 우리과 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우리식의 대출역발동기를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하였다. 주체적인 계제봉쇄동에 미쳐날뛰는 한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혁신학자들을 대체적으로 주동화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조선평방발부기를 전제없이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전에는 카나다에 주동세력을 불러들여 그 무슨 외교당국자들의 리는 것을 끌어놓고 우리 과학국에 대한 「해상차단」에 대비해서 거두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어떤 계제봉쇄와 군사적봉쇄공간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판을 위해 헌신분우하는 과학원과 학자들이 있는 한 적들의 계제소동은 그 어떤 맥도 출도를 막을 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과 결심을 높이 밟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 흥얼거리며 나선 우리과 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우리식의 대출역발동기를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하였다. 주체적인 계제봉쇄동에 미쳐날뛰는 한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혁신학자들을 대체적으로 주동화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조선평방발부기를 전제없이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전에는 카나다에 주동세력을 불러들여 그 무슨 외교당국자들의 리는 것을 끌어놓고 우리 과학국에 대한 「해상차단」에 대비해서 거두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어떤 계제봉쇄와 군사적봉쇄공간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판을 위해 헌신분우하는 과학원과 학자들이 있는 한 적들의 계제소동은 그 어떤 맥도 출도를 막을 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과 결심을 높이 밟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 흥얼거리며 나선 우리과 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우리식의 대출역발동기를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하였다. 주체적인 계제봉쇄동에 미쳐날뛰는 한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혁신학자들을 대체적으로 주동화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조선평방발부기를 전제없이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전에는 카나다에 주동세력을 불러들여 그 무슨 외교당국자들의 리는 것을 끌어놓고 우리 과학국에 대한 「해상차단」에 대비해서 거두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어떤 계제봉쇄와 군사적봉쇄공간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판을 위해 헌신분우하는 과학원과 학자들이 있는 한 적들의 계제소동은 그 어떤 맥도 출도를 막을 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과 결심을 높이 밟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 흥얼거리며 나선 우리과 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우리식의 대출역발동기를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하였다. 주체적인 계제봉쇄동에 미쳐날뛰는 한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혁신학자들을 대체적으로 주동화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조선평방발부기를 전제없이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전에는 카나다에 주동세력을 불러들여 그 무슨 외교당국자들의 리는 것을 끌어놓고 우리 과학국에 대한 「해상차단」에 대비해서 거두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어떤 계제봉쇄와 군사적봉쇄공간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판을 위해 헌신분우하는 과학원과 학자들이 있는 한 적들의 계제소동은 그 어떤 맥도 출도를 막을 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과 결심을 높이 밟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 흥얼거리며 나선 우리과 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우리식의 대출역발동기를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하였다. 주체적인 계제봉쇄동에 미쳐날뛰는 한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혁신학자들을 대체적으로 주동화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조선평방발부기를 전제없이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전에는 카나다에 주동세력을 불러들여 그 무슨 외교당국자들의 리는 것을 끌어놓고 우리 과학국에 대한 「해상차단」에 대비해서 거두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어떤 계제봉쇄와 군사적봉쇄공간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판을 위해 헌신분우하는 과학원과 학자들이 있는 한 적들의 계제소동은 그 어떤 맥도 출도를 막을 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과 결심을 높이 밟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 흥얼거리며 나선 우리과 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우리식의 대출역발동기를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하였다. 주체적인 계제봉쇄동에 미쳐날뛰는 한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혁신학자들을 대체적으로 주동화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조선평방발부기를 전제없이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전에는 카나다에 주동세력을 불러들여 그 무슨 외교당국자들의 리는 것을 끌어놓고 우리 과학국에 대한 「해상차단」에 대비해서 거두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어떤 계제봉쇄와 군사적봉쇄공간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판을 위해 헌신분우하는 과학원과 학자들이 있는 한 적들의 계제소동은 그 어떤 맥도 출도를 막을 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과 결심을 높이 밟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 흥얼거리며 나선 우리과 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우리식의 대출역발동기를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하였다. 주체적인 계제봉쇄동에 미쳐날뛰는 한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혁신학자들을 대체적으로 주동화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조선평방발부기를 전제없이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전에는 카나다에 주동세력을 불러들여 그 무슨 외교당국자들의 리는 것을 끌어놓고 우리 과학국에 대한 「해상차단」에 대비해서 거두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어떤 계제봉쇄와 군사적봉쇄공간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판을 위해 헌신분우하는 과학원과 학자들이 있는 한 적들의 계제소동은 그 어떤 맥도 출도를 막을 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과 결심을 높이 밟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 흥얼거리며 나선 우리과 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우리식의 대출역발동기를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하였다. 주체적인 계제봉쇄동에 미쳐날뛰는 한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혁신학자들을 대체적으로 주동화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조선평방발부기를 전제없이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전에는 카나다에 주동세력을 불러들여 그 무슨 외교당국자들의 리는 것을 끌어놓고 우리 과학국에 대한 「해상차단」에 대비해서 거두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어떤 계제봉쇄와 군사적봉쇄공간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판을 위해 헌신분우하는 과학원과 학자들이 있는 한 적들의 계제소동은 그 어떤 맥도 출도를 막을 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과 결심을 높이 밟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 흥얼거리며 나선 우리과 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우리식의 대출역발동기를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하였다. 주체적인 계제봉쇄동에 미쳐날뛰는 한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혁신학자들을 대체적으로 주동화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조선평방발부기를 전제없이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전에는 카나다에 주동세력을 불러들여 그 무슨 외교당국자들의 리는 것을 끌어놓고 우리 과학국에 대한 「해상차단」에 대비해서 거두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어떤 계제봉쇄와 군사적봉쇄공간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판을 위해 헌신분우하는 과학원과 학자들이 있는 한 적들의 계제소동은 그 어떤 맥도 출도를 막을 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과 결심을 높이 밟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 흥얼거리며 나선 우리과 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우리식의 대출역발동기를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하였다. 주체적인 계제봉쇄동에 미쳐날뛰는 한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혁신학자들을 대체적으로 주동화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조선평방발부기를 전제없이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전에는 카나다에 주동세력을 불러들여 그 무슨 외교당국자들의 리는 것을 끌어놓고 우리 과학국에 대한 「해상차단」에 대비해서 거두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어떤 계제봉쇄와 군사적봉쇄공간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판을 위해 헌신분우하는 과학원과 학자들이 있는 한 적들의 계제소동은 그 어떤 맥도 출도를 막을 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과 결심을 높이 밟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 흥얼거리며 나선 우리과 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우리식의 대출역발동기를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하였다. 주체적인 계제봉쇄동에 미쳐날뛰는 한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혁신학자들을 대체적으로 주동화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조선평방발부기를 전제없이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전에는 카나다에 주동세력을 불러들여 그 무슨 외교당국자들의 리는 것을 끌어놓고 우리 과학국에 대한 「해상차단」에 대비해서 거두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어떤 계제봉쇄와 군사적봉쇄공간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판을 위해 헌신분우하는 과학원과 학자들이 있는 한 적들의 계제소동은 그 어떤 맥도 출도를 막을 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과 결심을 높이 밟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 흥얼거리며 나선 우리과 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우리식의 대출역발동기를 새롭게 연구제작하고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하였다. 주체적인 계제봉쇄동에 미쳐날뛰는 한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혁신학자들을 대체적으로 주동화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조선평방발부기를 전제없이 고조시키고 있다. 얼마전에는 카나다에 주동세력을 불러들여 그 무슨 외교당국자들의 리는 것을 끌어놓고 우리 과학국에 대한 「해상차단」에 대비해서 거두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어떤 계제봉쇄와 군사적봉쇄공간도 우리를 놀래울 수 없으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고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고 그 판을 위해 헌신분우하는 과학원과 학자들이 있는 한 적들의 계제소동은 그 어떤 맥도 출도를 막을 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구상과 결심을 높이 밟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에 흥얼거리며 나선 우리과 학자들과 군수

